

“콘텐츠·디바이스까지”... K-미디어, 글로벌 진격 신호탄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출범
삼성·LG·CJ 등 대표 기업 총집결
디바이스·플랫폼 전략 등 본격화

AI 더빙·광고 연계로 해외 공략
정부·민간, FAST 생태계 협력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삼성전자·LG전자·CJ ENM·KBS·MBC·SBS·JTBC·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K-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며 K-미디어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3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을 비롯해 국내 미디어·통신 대기업과 AI·플랫폼 기술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총 22개 기업·기관은 이날 다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미디어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는 K-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이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과기정통부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개방형 민간 협의체로,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민간 의장을 맡았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민간 협업의 첫 걸음이다.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의 융합이라는 4대 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미디어 전략이다. 힘을 모은 기업들은 AI 더빙, 해외 현지화, 글로벌 광고·커머스 연계, 국제 컨퍼런스 등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FAS-

T 생태계의 국제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FAS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I 더빙을 통한 현지화 ▲광고·커머스 연계 수익모델 ▲국제 FAST 컨퍼런스 개최 등 후속 사업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얼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현지 시청자별 극복을 위한 AI 더빙 특화 K-미디어 현지화 지원, 해외 시청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커머스 연계 등 융-

합 프로젝트 발굴, 국제 FAST 컨퍼런스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K-FAST는 콘텐츠, 플랫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함께 한국 미디어 산업이 FAST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얼라이언스 민간 의장은 “K-FAST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선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전략적 연계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K-미디어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맞춤 AICC 플랫폼 구축

TCK와 AI·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KT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CK)와 함께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맞춤형 인공지능 콘택트센터(AICC)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양사는 2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TCK AICC+(가칭)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TCK는 글로벌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 기업인 트랜스코스모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디지털 마케팅, 콘택트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산업별 AI 솔루션 공동 개발 ▲보안성 높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공동 마케팅 및 글로벌 세일즈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KT의 AICC 기술력과 TCK의 클라우드 역량을 접목해 BPO 시장 전반에 특화된 AICC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유심정보 침해 SKT... 정부와 공동대응에도 가입자 불안

고객 인증정보 담긴 HSS 해킹
IMSI·Ki 유출 정황, 도청·사기 우려
‘유심 보호서비스’ 실효성엔 의문

SK텔레콤의 핵심 서버가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 SK텔레콤이 안내한 ‘유심(USIM)보호서비스’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며 사용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공격받은 장비는 통신 서비스의 설계와 인증을 맡는 홈가입자서버(HSS, Home Subscriber Server)로, 유심 복제와 2차 범 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심 정보만 유출됐다는 통신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과거 있었던 심 스와핑(SIM Swaping) 범 죄까지 재조명 되는 가운데 사용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를 통해 고유식별번호(IMSI)와 인증키값(Ki) 등이 유출되면서 사용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스1

SK텔레콤은 19일 내부감사에서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이후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통보했고, 과기정통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의 악용 사례는 없다.

SK텔레콤은 “고객 고지를 통해 악-

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의심 상황을 공개한 이후 정확한 정보 유출 원인과 규모 및 항목 조사에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권장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의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무료다. 22일 정보유출 사태 공지 후 하루만에 7만2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서비스가 해외에서의 로밍을 제한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유심 복제가 가능해 사각지대의 원천차단은 어렵고, 해-

외 방문이 잦은 사용자들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뉴스를 통해 해킹 사실을 접하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강지환(44)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유심을 무료로 변경해주는 등 더 강력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상태에서도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용자들이 대처할 방법은 사실 크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해킹당한 기기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용자들의 공포심리는 더욱 커졌다.

/김서현 기자



KT 엔터프라이즈부부장 안창용 부사장(왼쪽)과 TCK 타니 히로유키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상업용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가 24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의 경량 모델 3종 ▲하이퍼클로바X SEED 3B ▲하이퍼클로바X 씨드 1.5B ▲하이퍼클로바X 씨드 0.5B의 개발을 완료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로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는 해당 모델을 내려 받아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비즈니스 및 학술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공개하는 오픈소스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씨드는 연구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기존 국내 기업들의 주요 모델과 달리 상업 목적으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나 라이선스 제한 등의 문제로 생성형 AI 도입을 망설였던 중·소규모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국내 AI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LGU+ “네트워크 장애 예측부터 대응까지 자동화”

에릭슨과 ‘AI 네트워크 조치’ 시연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 활용
NWDAF로 과부하 실시간 예측

LG유플러스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에릭슨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네트워크 장애를 예측하는 기술을 시-

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반 네트워크 장애 예측 기술은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의 핵심으로 꼽힌다.

NWDAF는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애를 예측하며, 필요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네트워크 자동화를 돕는 장비다.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의 표준기술장비이기도 하다.

LG유플러스와 에릭슨이 이번 시연한 기술도 기지국의 트래픽 혼잡 상황이 발생했을 때, NWDAF를 통해 네-

트워크 슬라이스 별 과부하를 실시간으로 인지·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등 네트워크 품질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조치 시행까지 결합될 경우 ‘인간 운영자’의 개입없이도 네트워크가 작동되는 자동운영 솔루션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서현 기자